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기독교대한감리회

# 청파교회



since

1929.5.1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 3가 85  
☎ 713-5254(사무실) 717-2605(담임목사실)  
Homepage : <http://www.chungpa.or.kr>

# 주 일 낮 에 배 순 서

【 왕국절 제7주 】

전 주 .....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	비 전 .....
♠ 예배로의 부름 .....	다함께 인도자
♠ 경배의 찬송 .....	56. 지난 이레 동안에 .....
♠ 공동기도 .....	다함께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니 부끄럽습니다. 처리해야할 이런저런 일들에 쫓겨 제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잊는 데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가까이 계셨고, 평화와 기쁨의 집으로 초대하셨건만, 우리의 눈과 귀는 온통 세상일에 쏠려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살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가 되기를 원하는 꿈은 여전히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절망이 강요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주님의 말씀에 충실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십시오. 우리에게 밝은 마음과 열정적인 가슴, 그리고 강한 의지를 주셔서 주님의 위대한 사랑의 계명을 따라 말하고 행동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지금 여기에서 주님의 부르심에 온몸으로 응답하는 참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	다함께
♠ 위로의 말씀 .....	호 10:12 .....
♠ 교 독 문 .....	15. 시편51편 .....
♠ 영 광 송 .....	1. 만복의 근원 하나님 .....
대표기도 .....	I. 최인환 선생 II. 김재흥 목사
사도신경 .....	다함께
응 답 송 .....	성가대
찬 송 .....	1. 213. 먹보다도 더 검은 .....
성경봉독 .....	I. 약 3:2-12 .....
	II. 행 3:25-26 .....
찬 양 .....	박미영 집사
말 씬 .....	I. 성(誠)스러움에 관하여 .....
	II. 잃어버린 형상을 찾아서 .....
	김재흥 목사
	김기석 목사

거듭기도 .....	다함께
헌신의 찬송 ..... 356. 성자의 귀한 몸 .....	다함께
헌금봉헌 .....	다함께
♠ 봉 헌 송 ..... 71. 내게 있는 모든 것을 .....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	인도자
공동체 소식 .....	인도자
♠ 평화의 인사 .....	다함께
♠ 결단의 찬송 ..... 59. 성전을 떠나 가기 전 .....	다함께
♠ 보냄의 말씀 .....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일에 감사함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머무는 삶의 자리가 어디이든 그곳을 거룩한 땅으로 여기십시오.

**다 함 께 :** 우리의 생명이신 주님, 당신의 일을 함께 하자는 부르심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이제 세상과 우리 자신에 대한 절망감에서 벗어나, 이전보다 더 조화로운 세상을 가꾸는 일에 기꺼이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우리의 결심이 결실을 맺도록 늘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 아멘.

♠ 축 복 ..... 담임목사

☼ **우리의 내일은 밝습니다** ☼

<b>주일 오후 집회</b>	<b>수요 집회</b>
에스겔 통독강좌(10)	로마서 강해(56)
기도: 백혜숙 집사	기도 : 문복순 권사

<b>다음 주 예 배 위 원</b>	<b>설교</b>	<b>기도</b>	<b>성경봉독</b>
	김기석 목사 김기석 목사	엄혜영 선생 박옥식 전도사	다함께 김용길 집사

<b>10월</b>	영접위원	한완식	김정길	김종훈	최숙화	고숙이	박미영
	헌금위원	조병무	방문성	박창운	유영남	배삼순	이기분

## 나눠 주는 사랑도 받는 사랑도

쌍둥이 엄마는 스테인레스 그릇을 좋아합니다. 우리 집에 와서 널찍한 찬통과 체를 보고서는 “좋네, 좋다.”를 연발하더군요. 얼마 전에 수저통을 스테인레스로 바꾼 걸 보았습니다. 그이의 말투를 흉내 내어 제가 말했지요.

“그대는 스텐 겁나게 좋아해, 그치?”

“좋잖아. 밭에 참 낼 때도 좋고, 집어 던져도 깨지길 하나, 스텐이 제일이여.”

잘 깨져도 도자기 그릇을 좋아하는 저와 달리, 그이는 그렇게 쓸모를 먼저 따집니다. 여섯 식구 건사에 농사일까지 도맡아하며 살다보니 꾸미기 위한 것, 없어도 되는 것들은 멀리 하고 꼭 필요한 것, 쓸만한 것들을 중하게 여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이의 모습 그대로지요. 꾸미거나 과장하는 일없이 자신의 역할에 충실한 모습도 그렇고, 현실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기보다 해결해야 할 일이 생기면 얼른 달려들어 능수능란하게 처리해버리는 솜씨도 그렇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그 사실을 저는 한참 후에야 알았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면 마음 상할 일도 더러 있을 텐데, 그런 일을 한번도 입 밖에 낸 적이 없었으니까요.

쌍둥이네는 당근 농사를 크게 짓습니다. 며칠 전, 그이의 당근 밭에 가서 일손을 도운 적이 있습니다. 잦은 비 때문에 때를 놓쳐 늦게 캐게 되었는데, 그나마 캐는 날도 비가 오락가락했습니다. 질척거리는 밭에 일당을 주고 산 일꾼이 반이요, 와서 그냥 도와주는 일꾼이 반입니다. 평소 그이가 얼마나 덕을 쌓고 사는지, 당근 밭에서 확인한 셈이지요. 그냥 도우러 온 일손 중에 장애아를 키우는 엄마가 저를 포함해 셋이나 됩니다. 그이가 사람을 가려 사귀는 것도 아닐텐데, 어찌된 일인지 그 밭에 모인 사람이 그러했습니다.

쌍둥이 엄마만이 갖고 있는 특별함을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단순히 사람을 좋아한다는 성품 때문만은 아닌 듯 합니다. 사람을 즐겁게 해 주는 능력이 있긴 하나,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사람에 대한 배려가

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을 이리저리 재지 않을뿐더러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거침없이 말하지만 상대방의 감정을 다치게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편안하게 나눠주는 사랑일 것입니다.

그이의 사랑 가운데 으뜸은 아무래도 남편을 향한 것일 테지요. 아이를 낳으려고 진통을 하다말고, 새벽 일찍 자기 때문에 밥을 굶고 있는 남편이 안쓰러워 밖에 나가 따뜻한 국밥을 사 먹이고 돌아와 아이를 낳았다는 그이. 그 사랑의 반의 반도 못 받았을지라도 언제나 당근 받으로 달려와 그이를 도와주려는 사람이 수두룩한 걸 보면 그이는 나눠주는 사랑도 받는 사랑도 넉넉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말버릇으로 ‘아무 생각 없이’를 달고 사는 그이지만, 저는 그이가 생각 없이 사는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래도 하루, 저래도 하루, 웃고 즐기고 살자’며 쉽게 쉽게 사는 듯하지만, 고된 밭일이나 포장작업을 멈추고 잠시 짬이 날 때 그 시간을 알뜰하게 즐길 만큼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되풀이되는 당근 포장작업을 지겹지 않게 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구요.

언젠가 쌍둥엄마가 며칠 드러누운 적이 있습니다. 핑계를 대기로는 사랑니를 잘못 뽑아 입안이 부었다고 했지만, 살짝 들추어본 이불 속의 그이 얼굴은 눈물범벅이었습니다. 그이인들 괴롭고 무거운 인생에서 훌가분하게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현실을 탓하지 않고 금방 툭툭 털고 일어나 “어! 그대에~”를 외치는 사람, 눈 코 뜰 새 없이 바쁠 때에도 부엌 창가에 들장미와 영경귀를 꽂아두는 사람이 그이입니다. ‘아무 생각없이’가 아니라, 안 해도 되는 생각은 안 하고 해야 될 생각만 하고 사는 사람이지요.

쌍둥엄마는 민서의 재롱을 볼 때마다 “명물은 명물이어.”라는 특이한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인근 말을 통틀어 명물은 그이입니다. 고요한 시골 마을에 유쾌함과 생기를 전해주는 이가 바로 쌍둥엄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비뚤게 나가는 삶을 꾸짖으신 다지만, 주위를 잘 보면 나를 고달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만 주시지는 않은 듯 합니다. 사는 날 동안 힘이 되며 즐거움을 나눠주는 사람도 함께 주신 것입니다. 쌍둥엄마의 말투대로 한 옥타브 올려 물어볼게요. “그대에~. 그대 결엔 그런 사람 있지유?” (홍성의 농사꾼 추들란)

▣ **마/음/으/조/읽/는/글**

## 가을의 말씀

새벽 창으로 흘러드는  
가벼운 날개 같은 말씀  
“네 옷을 바꿔라”

아침 들판 건너오는  
구슬같이 맑은 말씀  
“네 샘을 맑혀라”

해 떨어지는 수심하는 천지에  
초막마다 켜지는 등불  
“네 속의 빛을 밝혀라”

시내 위에 서면 목멘 물소리  
하늘 아래 서면 저 떠는 별소리  
“영원으로 영원으로 올라라 올라라!”

(함석헌)

###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원로목사 : 박정오    소속목사 : 한인철    전도사 : 박옥식  
원로장로 : 방현복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장    로 :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이용한    윤석철  
성가대장 : 김근종    지휘 : 윤주원    반주: 최윤선    안홍숙    한선희    김수진  
관 리 인 : 노용래    운전기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이순정

## ◇ 헌금 영수기 ◇

### 십일조헌금:

김기석 김희우 박옥식 한상익 정영선 오진훈 노순옥 구명자 김필순  
 김근종 정옥영 김정길 최숙화 김순복 전영웅 윤수진 이정규 이인섭  
 이은옥 윤미경 김지윤 방현복 이부방 방문성 박해경 고광송 이춘희  
 김재흥 최희영 박재실

### 월정헌금:

김명순 문금석 이정은 김종문 지명주 김정섭 송의섭 노봉임

### 감사헌금:

정두리 이교영 김종훈 안경숙 류건형 방현복 이부방 박상규 김흥기  
 표명화 김만수 이영옥 유혜경 이인섭 노봉임

생일감사헌금: 배상순 김인걸 유영남 조관행 홍선희

## ◇ 속회 보고 ◇

속명	인도자	속장	모인곳	다음장소
예루살렘	박옥식	차혜심	이명옥	하재두
베들레헴	윤정덕	정경례	정경례	표명화
안디옥	임정자	곽권희	박경원	이춘희
가나안	유영남	문영혜	박경선	
갈릴리	조병주	박애순	문금석	박애순
베다니	임창선	박홍재	김순복	박홍재
시온	박효선	허정윤	이인섭	송의섭
엠마오	최숙화	권미정	권미정	최숙화
에베소	이순정	한선희	이순정	
빌립보	최종원	이형숙	이형숙	최종원
가버나움	구성실	안홍숙	구성실	김진경
나사렛	백혜숙	정옥영	정영선	백혜숙
갈라디아	송양진	유경순	유경순	안경숙
고린도	이영란	이증자	윤정화	배상순
다메섹	박해경	최영혜	최영혜	조항미
두란노	안종일	정현주	교회	교회

##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2003년 -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골4:17)

1. **월례회** : 2부 예배 후 제1남녀 선교회, 나오미 선교회 월례회가 있습니다.
2. **심방일정** : 옛 사람의 옷을 벗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4(화)- 갈라디아, 갈릴리 16(목)-빌립보,고린도 17(금)-가버나움
3. **테니스대회** : 제7회 청파테니스 대회가 19일 오후 2시부터 한강 둔치에 있는 여의도 테니스 코트에서 열립니다. 바닥이 평평한 운동화를 준비해 주십시오. 참가하실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바랍니다.
4. **수험생**: 수능이 한 달여 남았습니다. 주위 수험생들이 이 힘든 시기 지치지 않고 집중력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기도와 격려 바랍니다.
5. **신앙실천** : 전자우편이 일반화되는 시대이기에, 손으로 정성스럽게 쓴 편지는 더욱 정겹습니다. 누군가에게 가을의 편지를 쓰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해보십시오.

\* 헌화 : 이한립/김명희( 결혼기념 )

\* 점심 : 정두리 권사 가정에서 대접하십니다.

##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치부	10:50	유치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초등부	10:50	교육관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중고등부	10:50	학생회실	오후집회	14:00	교육관
2 청년회	16:00(±)	청년회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1 청년회	16:00(±)	교사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